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실태와 요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idential Remodeling for Improving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Households

- Focused on Residential Remodeling Types and Needs of Elderly Households in Seoul -

중앙대학교 주거학과

조교수 김영주**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권오정

인천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

겸임교수 박남희

Dept. of Housing Studies, Chu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im, Young-Joo

School of Architecture, Konkuk University

Professor : Kwon, Oh-Jung

Dept. of Consumer & Child Development, University of Incheon

Adjunct Professor : Park, Nam-Hee

<Abstract>

Aging in place strategies such as residential remodeling have potential to enable older persons to remain in their own homes satisfactorily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residential remodeling, needs, and opinions of elderly households living in Seoul and to suggest the housing policy and system for improving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households.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115 elderly households were interviewed during April 25~June 25, 2005. Most of respondents wanted to stay in their own homes as long as they can and some of them remodeled their houses to adapt their physical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housing needs. Various factors such as financial problem and lack of knowledge about remodeling process, however, restricted their actions to realize their needs. Based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to activate 'aging in place' were proposed as future guidelines of housing policy related to residential remodeling for housing welfare of the elderly.

▲주요어(Key Words) : 노인가구(elderly household), 주택개조(housing remodeling),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주거욕구(housing need), 재가복지(aging in place)

* 이 연구는 건설교통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김영주 (E-mail : youngkim79@hotmail.com)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핵가족화 및 부모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노인가구(1인 및 부부가구)의 증가이다. 이러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에 44.9%(노인1인가구 16.2%, 노인부부가구 28.7%)에서 2005년에는 51.1%(노인1인가구 18.1%, 노인부부가구 33.0%)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6).

대다수의 노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과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환경, 즉 재가복지(aging in place)를 원한다(김익기·김동배·모선희·박경숙·원영희·이연숙·조성남, 1999). 이는 범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복지의 방향으로, 그 이유는 우선 경제적 측면, 친숙함과 편안함, 독립성, 프라이버시, 자신의 집과 관련된 수많은 개인적 의미 외에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감 등 때문이다(Rowles, 1993). 이처럼 거의 모든 노인가구는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에서 계속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Mutchler, 1994) 날로 쇠약해지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제약, 노인을 위한 제도적 서비스와 지원책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만족스런 수준의 삶을 질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Pynoos et al., 2001).

권오정(1997)에 의하면 노인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7.5시간으로 이중 16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이 62%로 가장 많고 하루 24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노인도 12%나 되어 노인들에게 주거환경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을 밝히고 있다. 오랜 시간 정든 자기 집을 떠날 경우 노인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Fogel, 1992) 노인의 주거환경은 확실히 계획되거나 대량으로 공급되어서는 안되며, 노인이 요구하는 제반 조건과 함께 노인 각자의 생활경험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택을 개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심영 등, 1996; Pynoos et al., 2003).

첨차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박신영 등, 2004)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최소한의 질적 보장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가능한 한 자립생활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을 개보수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오영희 등, 2005; 박신영 등, 2004).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증적 기초조사로서 노인가구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가구(노인 1인 혹은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가구 및 주거·생활특성, 주택개조실태와 만족도, 주택개조와 관련된 요구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가구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개조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가구의 주거환경실태

노인가구의 주거상황은 전반적으로 일반가구에 비하여 자가거주율은 높으나 주거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75.8%이며, 전세거주 11.5%, 보증부월세 9.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6).

노인가구 및 노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의 거주종류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2000년 현재 전국 노인가구의 67.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서종균,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정경희 등, 2005)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여 노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72%), 아파트(18.8%), 연립주택(4.0%), 상가주택(3.0%), 다세대주택(1.7%), 그리고 기타 유형의 주택(0.4%)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노인단독가구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주택유형인 동시에 노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20년간 노인 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거처의 종류 변화를 살펴보면 모두 아파트의 증가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노인가구의 안전사고 실태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 976명과 노인가구 476가구를 대상으로 관찰 및 사례조사를 통해 노인의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한 소비자보호원(1998)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

는 노인의 안전사고는 주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넘어짐'(40.7%)으로 방문턱 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사고였고, 둘째는 '미끄러짐'(36.7%)으로 바닥의 재질이나 물기 또는 신발의 바닥면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사고였으며, 셋째는 '떨어짐'(8.4%)으로 계단이나 옥상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침대나 의자 사용과 관련해서 떨어지는 사고였다. 전반적으로 가정 내의 안전사고는 욕실·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 침실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안전사고의 원인 중 질환이나 신체기능 악화로 인한 사례는 13%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47%는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였고 나머지 40%는 가정 내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위험한 장소나 사고원인 시설물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와 개조요구

김태일(1998)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아파트나 연립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의 공간사용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침실에서 '장롱에 이불 등을 넣거나 뺄 때'의 동작이나 욕실·화장실 내 '보행시의 바닥부분', 그리고 '욕조 내에서 앉거나 일어설 때'의 동작에서는 많은 아파트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대체로 모든 공간에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특히 욕실, 화장실, 침실, 계단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문제점 때문으로, 노인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건강상태, 보조기 사용에 따라 이들 불만족 공간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설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권오정(1997)의 연구 결과, 조사대상 중 반 이상의 노인가구가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주택개조의 필요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단독가구 노인들의 주택개조에 대한 이해와 주거조절 경험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주택개조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두번째 요인은 노인의 인식 부족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요인이 개선되어야만 노인단독가구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택개조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희정(2003)은 광주 지역 재가노인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환경 특성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수납장의 높이 조절, 생활용품에 색채대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 반면,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 비상벨 설치, 슛

자가 큰 전화기, 숫자가 큰 달력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에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비나 구조의 미흡으로 여러가지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주택개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명규(2000)의 연구결과, 노인단독가구는 주거이동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 주거환경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해 매우 높은 개선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노후한 부분의 수리나 부엌 및 화장실의 개조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및 개조실태와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목적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아직 노인층의 주거생활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자료 축적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표집방법을 이용한 자료 수집을 통해 노인가구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수집된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개조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점검하였다.

2. 조사지역 및 대상

조사지역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1970년~2000년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노인인구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결과¹⁾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도시계획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5개 권역(강동, 강서, 서북, 동북, 도심)²⁾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에서 노인

1) 이정화 외 5인(2004),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고령화 특성 및 변화분석.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 연구소.

2) 강동: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1> 조사대상지역과 노인인구비율 (N=115)

지역	동이름	노인인구비율(%)	표집수
영등포구	영등포2동	9.42	22
서초구	내곡동	7.58	11
	양재1동	5.21	
용산구	한강로3동	9.72	12
	이태원1동	9.37	
종로구	사직동	10.68	23
	부암동	9.78	
동대문구	청량리2동	8.88	19
서대문구	충정로2동	8.29	17
성북구	성북2동	11.53	11

인구의 비율³⁾이 가장 높은 1~2개 구씩 선정하였다. 만약 선정된 동이 도시계획상 향후 1~2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거나 이미 재개발, 재건축이 결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 역사적 보존 지역이거나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무허가 주택이나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동의 절대 인구가 너무 적은 경우 등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7개 구 10개 동을 선정하였다(<표 1>).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노인가구(노인 1인 혹은 노인 부부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주택 소유자로 한정하였다. 이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가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할 만한 공간적인 배려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을 임대하여 사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불편사항이 있어도 자신의 집이 아니므로 개조에 큰 제약받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집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7개 해당 구별로 구청의 협조를 얻은 후 각 구에서 선정된 동사무소 10곳을 통해 '65세 이상 교통비 지급자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대상 조건에 맞는 노인가구를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 구별로 약 75~125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들 노인가

강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북: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북: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도심: 종로구, 용산구, 중구

3) 2005년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평균 7.3%임(통계청, 2006).

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조사에 응해준 115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조사시기

조사대상자 중에서 3가구를 선정, 2005년 3월 2일~3월 17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한 후 1차적으로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3월 18일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4월 25일~6월 25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두 명의 조사원⁴⁾이 한 조가 되어 조사에 응해준 노인가구를 직접 방문, 구조화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5가구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4.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면접조사에 이용된 조사도구의 내용은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노인가구의 주택 특성, 노인가구의 주생활 특성,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실태 및 요구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통계처리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이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총 115명의 응답자 중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 26.0%(30명), 여자가 74.0%(85명)로 여자가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73.2세였으며 연령대별로는 70세~75세 미만이 30.1%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50.5%로 가장 많았던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도 13.3%였다. 노인가구의 한달생활비를 파악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한달생활비는 896,316원으로 이 중 1인가구는 755,500원, 2인가구는 1,052,777원이었다. 응답자들의 주 수입원은 '자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연금이나 저축'(25.9%), '부동산운영(임대수입)'(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유형을 보면 1인 가구(52.2%)와 부부가구(47.8%)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4) 주거학이나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2차에 걸친 조사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N=115

항 목	빈 도	%	
성별	남	30	26.0
	여	85	74.0
	소 계	115	100.0
연령 (전체평균 73.24세)	65세-70세 미만	32	28.3
	70세-75세 미만	34	30.1
	75세-80세 미만	31	27.4
	80세 이상	16	14.2
	소 계	113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5	61.9
	중학교 졸업	17	16.2
	고등학교 졸업	16	15.2
	대학교 졸업 이상	25	23.7
	소 계	105	100.0
전체 가구 한달 생활비 (평균 896,316원)	40만원 이하	42	36.9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23	20.1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10	8.8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7	14.9
	100만원 초과	22	19.3
소 계	114	100.0	
주 수입원	자녀 보조	32	29.6
	연금이나 저축	28	25.9
	부동산 운영(임대수입)	26	24.1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9	8.3
	근로사업소득	5	4.6
	친지 보조	1	0.9
	기타	7	6.5
	소 계	108	100.0
가구유형	1인가구	60	52.2
	부부가구	55	47.8
	소 계	115	100.0
단독가구형성이유	자녀가 있으나 독립생활을 원해서	57	50.0
	배우자와 둘이 살다가 사별해서	22	19.3
	자녀와 함께 살 형편이 안돼서	20	17.5
	자녀가 없어서	6	5.3
	기타(독신, 이혼, 집 협소 등)	9	7.9
소 계	114	100.0	

형성하게 된 이유로 50%의 응답자들은 '자녀가 있으나 독립생활을 원해서'라고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 둘이 살다가 사별해서'(19.3%), '자녀와 함께 살 형편이 안돼서'(17.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2>).

건강은 노인들에게 가장 어렵게 인식되는 문제점으로 조사대상 노인들에게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질문한 결과 57.2%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건강이 '나쁘다'고 한 반면 42.8%는 '건강하다'고 답하였다. 응답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한 경우

가 59.1%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은 '관절염'(50.4%), '만성요통'(30.4%), '당뇨'(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평상시 '계단오르기'(60.6%)와 '계단 내려가기'(55.6%)가 불편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은 '일어서기'(44.3%)와 '걷기'(40.9%), '시각'(3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편함과 관련된 주된 질병으로 많은 응답자들은 '관절염'을 언급하였다.

노인가구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

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⁵⁾(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으로 제시되고 있는 7개 세부항목에 대한 자립도를 조사한 결과 7개 항목 모두에 대하여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혼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인 노인가구의 대부분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비해 다소 세밀한 동작 등이 요구되는 도구적 일상생활활동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으로 제시된 10개 세부항목(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사기, 금전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에 대해서도 '교통수단 이용' 항목(86.6%)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에 대해서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 주거특성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주거공간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 및 주택규모, 대지면적, 주택가격, 거주기간, 공간구성형태, 주택사용형태,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 주택에 향후 거주 여부,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이유 등을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정리되었다.

응답자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9.0%) 그 다음이 다세대주택(29.5%), 아파트(16.2%), 연립주택·빌라(13.3%)의 순으로, 전국의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유형 분포 결과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⁶⁾.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균 규모는 25.9평이었다. 이를 평형대별로 구분해보면 가장 많은 39.2%의 응답자가 20평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20~30평 미만(32.8%), 30평 이상(28%)의 주택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대지면적은 48.8평이었으며 이중 가장 많은 25.1%의 응답자들이 대지면적 60평 이상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 평균 주택가격(공시지가 기준)은 184,773,067원이었다. 이중 주택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

우가 2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억원~1억5천만원(18.5%), 5천만원~1억원(17.1%)의 순이었으며 주택가격이 4억원 이상인 경우도 14.3%였다. 현재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약 19.5년이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9.8%의 응답자들이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7%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부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33.3%는 주택의 일부는 남에게 세를 주고 일부만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하루 중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9.5시간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50.4%가 하루 중 20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을 위하여 이들의 생활과 요구에 맞도록 주택을 계획해 줄 필요성과 중요성이 큼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의 89.6%는 앞으로도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내 집이어서'(33.5%)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전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한국주택학회(2002)의 연구결과⁷⁾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로 '교통이 편리해서'(15.7%), '경제적인 이유로'(15.2%), '자연환경이 좋아서'(12.7%) 등이 언급되었다. 반면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살고 있는 집이 생활하기 불편해서'(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곧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간구성형태 면에서 조사대상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방수는 3개인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개(33.6%)로 대개 방이 2~3개 정도인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실 수는 대부분(73.0%)이 1개였으며 욕실 역시 1개인 경우(76.5%)가 가장 많았다. 베란다와 다용도실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7.4%와 80.0%로 가장 많았으며 부엌·식당의 연결형태는 D-K형, 즉 부엌과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9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내에서의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욕실과 계단, 현관, 마당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다른 공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안전사고의 유형에 있어서는 방(침실), 욕실(화장실), 거실(마루), 부엌, 계단의 경우 모두 '미끄러짐'을 통한 사고경험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욕실에서 발생하는

5) 본 연구에서는 대한노인병학회의 노인기능평가연구회(2002)에서 개발한 한국형 K-ADL과 K-IADL을 사용하였다. K-ADL에는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이동하기, 옷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대소변조절하기 동작이 포함되며, K-IADL에는 몸단장하기, 집안일하기, 식사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이용하기, 약챙겨먹기 등의 동작이 포함된다.

6) 2000년 현재 전국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과 기타 주택유형의 비율이 65:35 정도로 나타난 반면 도시를 포함하는 동부의 경우에는 55:45 정도로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자료: 통계청·한국주택학회,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자료집, 2002).

7) 전국의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장래에 살고 싶은 곳을 파악한 결과 77.2%의 응답자가 '자기 집'이라고 하였으며 18.2%는 '자녀 집'이라고 응답하였다(자료: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표 3>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주거 특성

N=115

항 목	빈도	%	
주거유형 (주택규모 평균 25.9평) (주택대지면적 평균 48.8평)	단독주택	41	39.0
	다세대주택	31	29.5
	아파트	17	16.2
	연립주택(빌라)	14	13.3
	기타	2	1.9
	소 계	105	100.0
주택가격 (평균 184,773,067원)	5천만원 미만	16	21.3
	5천만원~1억원	13	17.1
	1억원~1억5천	14	18.5
	1억5천~2억5천	12	15.9
	2억5천~3억5천	9	11.8
	3억5천 이상	11	14.3
	소 계	75	100.0
거주기간 (평균 약 19.5년)	5년 미만	24	21.0
	5년~10년 미만	17	14.9
	10년~15년 미만	11	9.7
	15년~20년 미만	5	4.4
	20년~25년 미만	12	10.5
	25년~30년 미만	11	9.7
	30년 이상	34	29.8
소 계	114	100.0	
주택사용형태	전체 사용	66	66.7
	일부 사용	33	33.3
	소 계	99	100.0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평균 19.5시간)	10시간 미만	4	3.6
	10시간~15시간 미만	20	18.0
	15시간~20시간 미만	30	27.0
	20시간~21시간	28	25.2
	22시간~23시간	16	14.4
	24시간	13	11.7
	소 계	111	100.0
현 주택에 향후 거주여부	예	103	89.6
	아니오	12	10.4
	소 계	115	100.0
현 주택에 계속 거주이유*	내 집이어서	66	33.5
	교통이 편리해서	31	15.7
	경제적인 이유로	30	15.2
	자연환경(공원, 산책로)이 좋아서	25	12.7
	주변에 여가를 보낼 곳이 많아서	15	7.6
	종교시설이 가까워서	12	6.1
	자녀집과 가까워서	10	5.1
	기타(공기가 좋아서, 익숙해서..)	8	4.1
	소 계	197	100.0

*중복응답

안전사고 중 미끄러져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비율이 75.0%에 달해 욕실이 주택 내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계단 및 방(침실)에서 발

생한 안전사고 중에서도 미끄러짐을 통한 사고경험이 각각 56.2%와 50.0%로 나타나 욕실 다음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의를 요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현관이나 마당

<표 4>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공간별 주생활행위

N=115

행위	공간	침실(방)	거실/마루	부엌/식당	다용도실	베란다	욕실	기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개인생활	취침	104(90.4)	10(8.7)					3(2.6)
	낮잠자기	52(45.2)	13(11.3)					6(5.2)
	독서	30(26.1)	35(30.4)					1(0.9)
	신문보기	25(21.7)	42(36.5)	1(0.9)				
	취미생활	15(13.0)	29(25.2)	1(0.9)		1(0.9)		7(6.1)
	휴식	52(45.2)	54(46.9)	1(0.9)				8(7.0)
	음악감상	5(4.3)	9(7.8)					5(4.3)
	세면	16(13.9)					98(85.2)	13(11.3)
	목욕						94(81.7)	7(6.1)
	용변						111(96.5)	7(6.1)
	실내운동	16(13.9)	26(22.6)			2(1.8)		9(7.9)
	몸치장	91(79.1)	4(3.5)					
	개인TV시청	71(61.7)	42(36.6)	1(0.9)				
	컴퓨터사용	6(5.2)		1(0.9)				1(0.9)
개인식사	32(27.8)	28(24.3)	54(47.0)				3(2.6)	
개인이동	11(9.6)	5(4.3)	4(3.4)					
가족단란*	부부 대화	13(11.3)	39(70.9)	4(7.3)				
	부부 식사	5(4.3)	24(43.6)	27(49.1)				
	부부 다과	7(6.1)	38(69.1)	5(9.1)				
	부부 TV시청	20(17.4)	32(58.2)	2(3.6)				
행사	생일(기념일)	19(16.5)	56(48.7)	3(2.6)				4(3.4)
	명절/제사	26(22.6)	55(47.9)	5(4.4)				1(0.9)
	모임	17(14.8)	51(44.3)	5(4.3)				5(4.3)
접객	자녀취침	84(73.0)	8(6.9)					3(2.6)
	손님취침	68(59.1)	8(6.9)					1(0.9)
	손님식사	28(24.3)	42(36.6)	29(25.3)				3(2.6)
	손님대화	33(28.7)	62(53.9)	6(5.2)				
	손님다과	28(24.3)	60(51.8)	9(7.8)				
가사작업	생계관련 일	3(2.6)	4(3.4)	27(23.5)				
	식품손질건조		14(12.1)	78(67.8)	2(1.8)	3(2.6)		9(7.8)
	식품저장		6(5.2)	78(67.8)	9(7.8)	2(1.8)		11(9.5)
	큰요리 작업		23(20.0)	54(47.0)	3(2.6)	1(0.9)		4(3.4)
	일상음식조리		3(2.6)	89(77.4)	1(0.9)	7(6.1)		3(2.6)
	작은 빨래				9(7.8)	8(6.9)	65(56.5)	16(13.9)
	큰 빨래				11(9.6)	8(6.9)	53(46.1)	14(12.2)
	빨래 널기	24(20.9)	8(6.9)	2(1.7)	5(4.4)	24(20.9)	3(2.6)	47(40.8)
	빨래 정리	26(22.6)	53(46.0)	10(8.7)				3(2.6)
	바느질(재봉)	25(21.7)						
	다림질	14(12.2)	32(27.8)	4(3.5)				

*가족단란행위는 부부동거가구 55사례만 해당.

의 경우에는 특히 '걸려서 넘어짐'(25.0%)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3) 주생활 특성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주거공간별로 발생하는 주생활행위를 조사하였다. 이는 노인가구의 주된 생활행위가 무엇이며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공간별 만족도, 개조요구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

를 위해 주생활행위를 크게 개인생활, 가족단란, 가사생활, 접객 및 행사 등으로 구분하였고 주거공간은 크게 침실(방), 거실/마루, 부엌/식당, 다용도실, 베란다, 욕실, 기타 등으로 나누어 각 공간별 사용실태를 살펴보았다(<표 4>).

노인들은 침실(방)을 주로 취침기능으로만 사용하는 일반가구와는 달리 전통적인 안방처럼 취침, 접객, 가족단란, 식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용시간 역시 매우 길어 주택개조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가구에 비해 거실

<표 5> 주택개조유형별 개조행위의 특성, 개조여부 및 개조만족도

N=115

개조유형	개조특성	항 목	개조여부*	만족도**
			빈도(%)	평균
증개축	자립성	·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의 일부 개조	36(31.3)	3.36
		· 수납공간의 증가 또는 개조	34(29.6)	2.87
구조변경	편의성	· 선반을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	23(20.0)	3.04
	안전성	· 실내의 단차 제거	8(7.0)	2.93
	안전성	· 출입문의 폭 확장	5(4.3)	3.60
	안전성	·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게 개조	8(7.0)	2.60
	안전성/편의성	· 욕실의 문이 밖으로 열리도록 개조	9(7.8)	3.42
	안전성/편의성	· 욕조를 바닥에 매입하여 낮게 설치	-	-
	편의성	· 욕조를 제거하고 샤워부스 설치	5(4.3)	2.57
	편의성	· 부엌작업대 높이 조절	11(9.6)	3.08
	편의성	· 부엌작업대의 뒷벽에 보조선반 설치	25(21.7)	3.00
	안전성	·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 조절	10(8.7)	3.33
	안전성	· 출입구나 현관에 완만한 경사로 설치	9(7.8)	2.90
	안전성/편의성	·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좌식용 욕조설치	2(1.7)	2.60
	마감재 교체	안전성	·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사용	12(10.4)
쾌적성		· 벽, 벽장, 가구를 대비되는 색으로 바꿈	7(6.1)	3.00
쾌적성		· 실내를 밝고 차분한 색으로 바꿈	22(19.1)	3.17
안전성		· 작업대와 대비되는 색의 바닥 깔개 사용	11(9.6)	3.18
안전성		· 계단 바닥의 시작을 다른 색으로 처리	5(4.3)	2.67
보조기구 설비설치	안전성	· 화재/가스경보 장치 설치	15(13.0)	2.60
	안전성	· 비상연락장치 설치	11(9.6)	2.67
	안전성	· 층계에 손잡이용 난간 설치	28(24.3)	3.15
	안전성	· 복도나 통로에 안전손잡이 설치	9(7.8)	2.50
	안전성	· 단차가 있는 공간에 국부조명 설치	16(13.9)	3.25
	편의성	·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	21(18.3)	3.09
	편의성	·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 잠금장치 설치	22(19.1)	4.96
	편의성	·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	70(60.9)	3.83
	안전성	· 수도꼭지에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6(5.2)	3.00
	편의성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설치	28(24.3)	2.57
	쾌적성	· 욕실에 난방용 전구 설치	18(15.7)	2.40
	쾌적성	· 욕실에 환풍기 설치	10(8.7)	3.22
	안전성	· 욕조나 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	14(12.2)	2.00
	안전성	· 세면대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	3(2.6)	2.00
	편의성	· 팔을 걸칠 수 있는 세면대 설치	40(34.8)	3.33
	편의성	· 욕실/부엌에 온수시설 설치	68(59.1)	3.81
	안전성	·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목욕용 좌석 배치	26(22.6)	2.63
	쾌적성	· 창에 필름부착, 커튼, 블라인드 설치로 눈부심방지	27(23.5)	3.24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해당항목의 개조를 한 경우를 정리함.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해당항목의 개조를 한 경우 어느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매우 만족한다 5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로 파악한 결과의 평균치를 정리함.

에서의 접객과 행사는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일부 응답자들은 주택의 공간적 협소함을 지적하였다.

부엌/식당에서는 가사작업행위 외에 식사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식사행위의 발생비율은 일반가구에 비해 낮았다. 이는 난방시설의 미비로 인해 겨울에 춥거나 또는 몸이 불편하여 침실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욕실에서는 주로 용변, 세면, 목욕 등 개인생활 행위 외에 가사작업행위로서 세탁 행위의 상당부분이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노인가구를 위한 욕실개조 시

에는 세탁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한편 욕실 사용시 불편사항으로 욕실의 난방설비 부재를 언급한 경우가 일부 나타남을 볼 때 앞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외부로의 이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욕실 바닥에 난방설비를 하거나 난방용 열기구의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항으로 일부 응답자들은 각 방의 스위치 높이에 대한 불편사항, 수납공간의 부족, 방문턱의 높이, 문 여닫기의 불편함 등을 지적하였다.

<표 6> 노인가구의 공간별 주택개조실태

N=115

유형	항 목	침실(방)	거실/ 마루	부엌/ 식당	다용도실	베란다	욕실	기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증개축	· 임대가능하도록 주택 일부 개조	14(12.2)	4(3.5)	3(2.6)	3(2.6)	4(3.5)	1(0.9)	4(3.5)
구조 변경	· 수납공간의 증가 또는 개조	8(7.0)	3(2.6)	4(3.5)	3(2.6)	1(0.9)	1(0.9)	2(1.7)
	· 선반을 손닿는 높이에 설치	2(1.7)	2(1.7)	15(13.0)	1(0.9)	2(1.7)	4(3.5)	4(3.5)
	· 실내의 단차 제거	4(3.5)	4(3.5)	4(3.5)	4(3.5)	6(5.2)	1(0.9)	2(1.7)
	· 출입문의 폭 확장	-	-	5(4.3)	5(4.3)	4(3.5)	1(0.9)	2(1.7)
	· 문턱 제거하거나 낮게 개조	5(4.3)	4(3.5)	4(3.5)	4(3.5)	3(2.6)	3(2.6)	2(1.7)
	· 욕실문이 밖으로 열리게 개조	-	-	-	-	-	9(7.8)	-
	· 욕조를 바닥에 매입/낮게 설치	-	-	-	-	-	-	-
	· 욕조 제거하고 샤워부스 설치	-	-	-	-	-	5(4.3)	-
	· 부엌작업대 높이 조절	-	-	11(9.6)	-	-	-	-
	· 부엌작업대 윗벽 보조선반 설치	-	-	25(21.7)	-	-	-	-
	·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 조절	4(3.5)	1(0.9)	-	1(0.9)	1(0.9)	2(1.7)	1(0.9)
	· 출입구/현관에 경사로 설치	-	-	-	-	-	-	9(7.8)
	· 앉아서 씻는 좌식용 욕조 설치	-	-	-	-	2(1.7)	-	-
마감재 색교체	·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사용	2(1.7)	2(1.7)	1(0.9)	1(0.9)	1(0.9)	8(7.8)	7(6.1)
	· 벽, 벽장, 가구색 교체	1(0.9)	3(2.6)	-	3(2.6)	1(0.9)	-	1(0.9)
	· 밝고 차분하게 실내색 교체	10(8.7)	7(6.1)	5(4.3)	2(1.7)	2(1.7)	1(0.9)	1(0.9)
	· 작업대와 대비되는 바닥갈래 색	-	-	8(7.0)	3(2.6)	3(2.6)	3(2.6)	3(2.6)
	· 계단바닥을 다른 색으로 처리	-	-	-	-	-	-	5(4.3)
보조 기구 설비 설치	·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	5(4.3)	6(5.2)	7(6.1)	-	-	-	-
	· 비상연락장치 설치	7(6.1)	-	-	-	-	5(4.3)	-
	· 층계에 손잡이용 난간 설치	-	-	-	-	-	-	28(24.3)
	· 복도나 통로에 안전손잡이 설치	-	-	-	-	-	-	9(7.8)
	· 단차있는 공간에 국부조명 설치	-	-	-	4(3.5)	6(5.2)	16(13.9)	16(13.9)
	· 조작용이 창문/문손잡이 설치	5(4.3)	7(6.1)	4(3.5)	2(1.7)	5(4.3)	4(3.5)	1(0.9)
	· 조작용이 창문/문잠금장치 설치	1(0.9)	3(2.6)	3(2.6)	3(2.6)	2(1.7)	2(1.7)	6(5.2)
	· 조작용이 레버식 수도꼭지 설치	-	-	26(22.6)	4(3.5)	2(1.7)	25(21.7)	4(3.5)
	· 수도꼭지에 자동온도조절장치	-	-	5(4.3)	3(2.6)	5(4.3)	3(2.6)	2(1.7)
	· 높이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설치	-	-	-	-	-	28(24.3)	-
	· 욕실에 난방용 전구 설치	-	-	-	-	-	18(15.6)	-
	· 욕실에 환풍기 설치	-	-	-	-	-	10(8.7)	-
	· 욕조/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	-	-	-	-	-	14(12.2)	-
	· 세면대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	-	-	-	-	-	3(2.6)	-
	· 팔을 걸칠 수 있는 세면대 설치	-	-	-	-	-	40(34.8)	-
	· 욕실/부엌에 온수시설 설치	-	-	32	-	-	36(31.3)	-
	· 앉아서 샤워 가능한 좌석 배치	-	-	-	-	-	26(22.6)	-
	· 창문처리로 눈부심 방지	6(5.2)	23(20.0)	9(7.8)	4(3.5)	1(0.9)	4(3.5)	5(4.3)

2. 주택개조 실태와 개조 만족도

1) 주택의 개조실태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현 주택에 행한 개조내용과 개조 후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택개조⁸⁾의 유형을 크게 '증개축', '구조변경', '마감재 및 색 교체', '보조기구·설비 설치' 등으로 대별한 후 각 유형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개조항목으로 총 37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한편 개조행위의 특성을 '자립성',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노인가구가 행하는 주택개조의 주된 목적을 분석하였다.

(1) 증·개축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현 주택에 대한 증·개축 실행여부를 파악한 결과 31.3%의 응답자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의 일부를 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현금 소득원이 없는 상

8) 본 연구에서 주택개조란 노인 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수월하도록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 주택에 행하는 일련의 적극적 행위를 말함.

<표 7>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요구

N=115

항 목	개조요구*		항 목	개조요구*	
		빈도(%)			빈도(%)
증축	·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 일부 개조	11(9.6)	·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	70(60.9)	
구조 변경	· 수납공간의 증가 또는 개조	25(21.7)	보조 기구 설비 설치	· 비상연락장치 설치	69(60.0)
	· 선반을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	30(26.1)		· 층계에 손잡이용 난간 설치	17(14.8)
	· 실내의 단차 제거	41(35.7)		· 복도나 통로에 안전손잡이 설치	14(12.2)
	· 출입문의 폭 확장	15(13.0)		· 단차있는 공간에 국부조명 설치	25(21.7)
	·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게 개조	58(50.4)		· 조작용이 창문/문손잡이 설치	46(40.0)
	· 욕실의 문이 밖으로 열리도록 개조	7(6.1)		· 조작용이 창문/문잠금장치 설치	33(28.7)
	· 욕조를 바닥에 매입하여 낮게 설치	28(24.3)		· 조작용이 레버식 수도꼭지 설치	11(9.6)
	· 욕조를 제거하고 샤워부스 설치	11(9.6)		· 수도꼭지에 자동온도조절장치	41(35.7)
	· 부엌작업대 높이 조절	31(27.0)		· 높이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설치	51(44.3)
	· 부엌작업대 윗벽에 보조선반 설치	7(6.1)		· 욕실에 난방용 전구 설치	51(44.3)
	·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 조절	22(19.1)		· 욕실에 환풍기 설치	36(31.3)
	· 출입구/현관에 완만한 경사로 설치	24(20.9)		· 욕조/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	48(41.7)
	· 앉아서 샤워가능한 좌식욕용욕조설치	37(32.2)		· 세면대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	45(39.1)
	마감재 교체	·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사용		47(40.9)	· 팔을 걸칠 수 있는 세면대 설치
· 벽, 벽장, 가구 색 교체		20(17.4)	· 욕실/부엌에 온수시설 설치	5(4.3)	
· 실내를 밝고 차분한 색으로 바꿈		24(20.9)	· 앉아서 샤워 가능한 좌식 배치	37(32.2)	
· 작업대와 대비색의 바닥깔개 사용		17(14.8)	· 창문치리로 눈부심 방지	12(10.4)	
· 계단바닥 시자를 다른 색으로 처리		25(21.7)			

*앞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당수의 노인들이 주택을 개조하여 임대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고자 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조변경

구조변경에 속한 13개 항목들 중 개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항목은 '수납공간의 확장'(29.6%)이었으며 '부엌작업대 윗벽에 보조선반 설치'(21.7%), '선반을 손이 닿는 높이에 설치'(20.0%)하는 순이었다(<표 5>). 한편 구조변경에 속하는 개조행위들은 모두 안전성과 편의성에 관련된 항목들로서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 개조시 이러한 측면을 많이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주택 내 각 공간별로 개조행위가 일어난 분포를 파악한 결과 증·개축 및 구조변경과 관련된 개조행위들은 특히 부엌/식당과 침실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침실의 경우 '임대 가능하도록 일부를 개조'하거나 '수납공간 확장' 및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게 개조'하고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를 조절'하는 사례가 다른 공간에 비해 좀 더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한편 부엌/식당에서는 작업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반을 손닿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부엌작업대 윗벽에 보조선반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폭을 확장'하거나 '부엌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개조행위가 많이 나타났다.

(3) 마감재 및 색 교체

마감재 및 색 교체와 관련한 주택개조에서는 현재 주택

의 실내를 '밝고 차분한 색'(19.1%)으로 바꾼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끄럼방지용 바닥재'(10.4%)로 교체하는 순이었다. 개조행위의 특성을 보면 마감재 및 색의 교체가 단순히 실내의 쾌적성 증진을 위한 목적 외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공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택 내 각 공간에서 마감재 및 색 교체가 비교적 골고루 행해졌으나 특히 부엌/식당, 침실, 욕실 및 거실에서는 다른 공간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표 6>).

(4) 보조기구·설비 설치

보조기구나 설비에 관한 18개 항목 중 응답자의 60.9%는 '조작이 용이한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 '욕실과 부엌에 온수시설'(59.1%), '팔을 걸칠 수 있는 세면대 설치'(34.8%) 등을 하였다(<표 5>).

개조행위의 특성을 보면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이 9개로 절반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편의성(6개), 쾌적성(3개)의 순이었다. 보조기구나 설비 설치와 관련된 개조행위는 욕실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엌/식당이었다(<표 6>).

2) 개조 만족도

주택을 개조한 이후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조와 관련된 총 37개 세부항목 각각에 대하여 5점 척도(매우 만족한다 5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로 만족정도를 파

악하였으며 항목별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표 5>).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개조한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인 것은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 잠금장치 설치'로 평균 4.96점이었다. 이밖에도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평균 3.83점), '욕실/부엌에 온수시설 설치'(3.81점), '출입문의 폭 확장'(3.60점), '욕실 문이 밖으로 열리도록 개조'(3.42점) 등의 순으로 개조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조한 항목 중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욕조나 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 '세면대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로 5점 만점에 각각 2.0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았던 항목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사용'(2.5점), '복도나 통로에 안전손잡이 설치'(2.5점) 등이었다. 안전손잡이 설치의 경우 사용자의 자세나 불편한 부위에 따라 적절한 위치 선정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설치될 경우 사용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만족도 역시 낮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주택개조요구

주택개조와 관련된 37개 세부항목 중 현재 개조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60.9%)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상연락장치 설치'(60.0%),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게 개조'(50.4%), '높이조절이 가능한 샤워기 설치'(44.3%), '욕실에 난방용 전구 설치'(44.3%), '욕조나 양변기에 안전손잡이 설치'(41.7%),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사용'(40.9%),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40.0%), '세면대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39.1%), '실내의 단차제거'(35.7%), '수도꼭지에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35.7%) 등의 순으로 요구하였다(<표 7>).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노인가구들은 신체적 노화에 따라 무엇보다도 주택내의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개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택개조에 대한 의견

현 주택에서의 지속적인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향후 주택개조 의사, 개조비용 부담,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반 이상(51.8%)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주택에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이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8.2%는 '불편할 것이다'라고 답하여 주택개조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현재의 주택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46.0%의 응답자들은 '불편하지만 그냥 참고 살겠다'라고 함으로써 소극적인 주거적응의 의사를 보인 반면 31.7%는 '주택을 개조하여 계속 살겠다'라는 적극적인 주택개조의사를 표명하였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개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반 정도의 응답자(50.9%)들은 '불편하지만 주택을 개조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답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주택개조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한편 33.3%의 응답자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주택에서 오래 거주함에 따라 자신의 주거에 익숙하게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앞으로 개조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개조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응답률(53.3%)이 '개조의사가 있다'고 한 경우(46.7%)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개조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 그 이유로는 '현재의 주택이 불편하지만 그냥 참고 살 만하기 때문이다', '주택개조에 돈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주택을 개조하려면 번거로운 것이기 때문이다'(19.6%)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택개조 과정상의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이유가 곧 노인가구의 주택개조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개조할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주택 개조 시 드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45.4%의 응답자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개조비용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 다음으로 '나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4.4%), '자식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1%)의 순으로 답하였다. 만일 외부로부터 주택개조에 드는 비용이 지원될 경우 개조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80.5%의 응답자들이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정부에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할 지에 대하여 49.0%의 응답자들이 '71% 이상'을 언급하였으며 다음은 '51~70%'(25.5%)였다. 한편 주택 개조시 드는 비용의 지원방식에 대하여 68.2%의 응답자들은 '주택개조를 직접 해주기'를 원하였던 반면 26.2%는 '돈으로 주기'를 원하였다. 주택 개조비용이 지원될 경우 이를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88.8%)의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찬성하였다. 정부로부터의 지원 외에 주택개조 시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개조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

<표 8> 주택개조에 대한 의견

N=115

		항목	빈도	%
현 주택에서의 향후 노후생활		매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5.4
		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2	46.4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8	33.9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6	14.3
		소 계	112	100.0
현 주택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불편하지만 그냥 참고 살겠다	29	46.0
		주택을 개조하여 계속 살겠다	20	31.7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겠다	11	17.5
		노인시설이나 노인전용주택으로 가겠다	1	1.6
		소 계	63	100.0
현 주택을 개조하지 않은 이유		불편하지만 주택을 개조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29	50.9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19	33.3
		주택개조공정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했다	3	5.3
		불편하지만 주택개조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2	3.5
		기타	4	7.0
		소 계	57	100.0
향후 현 주택 개조의사		예	49	46.7
		아니오	56	53.3
		소 계	105	100.0
향후 주택개조의사가 없는 이유		현재 주택이 불편하지만 그냥 참고 살 만하다	15	26.8
		주택개조에 돈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15	26.8
		주택을 개조하려면 번거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11	19.6
		개조해도 많이 편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1	1.8
		소 계	56	100.0
비용부담주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	45.4
		나 또는 내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	34.4
		자식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13.1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4.4
		기타	5	2.7
		소 계	183	100.0
비용지원시 개조의사		개조할 의사가 있다	91	80.5
		개조할 의사가 없다	22	19.5
		소 계	113	100.0
정부의 개조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	개조비용 정부지원정도	10% 이하	3	3.0
		11~30%	8	8.2
		31~50%	14	14.3
		51~70%	25	25.5
		71% 이상	48	49.0
		소 계	98	100.0
	개조비용 지원방식	주택개조를 직접 해 준다	73	68.2
	돈으로 준다	28	26.2	
	소 계	107	100.0	
부족한 개조비용 마련방안		내 돈으로 충당하겠다	56	54.9
		저리융자제도를 이용하겠다	3	2.9
		역모기지 제도를 이용하겠다	2	2.0
		기타	41	40.2
		소 계	102	100.0

*중복응답

한 질문에 대하여 54.9%의 응답자들은 '내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답하였다.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응답자들은 정부가 주택개조 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돈으로 충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조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가구의 자립적 생활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택개조와 관련된 결론 및 향후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재가복지 요구증가에 따른 주택개조 필요성 증가

본 조사대상의 연령은 평균 73.2세로 대부분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만의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도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함으로써 내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재가복지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 그 주된 이유로는 '집이 생활하기 불편해서'라고 응답함으로써 만일 앞으로 주택개조가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집에서 계속 거주할 노인가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재의 주택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1/3 정도는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적극적인 주택개조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기존 주택 내에서의 안전사고 실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발생빈도는 낮으나 욕실이나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서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의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주택개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주택개조비용 지원정책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현 주택을 개조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언급한 것은 노인가구의 주택개조를 위한 경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 주택에 대한 향후 개조의사가 없는 경우의 주된 이유는 주택개조 과정상의 번거로움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개조에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면 대부분이 자신의 집을 개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정부가 개조비용을 지원할 경우 보다 많은 노인가구가 주택개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 공간별 개조실태에 따른 주택개조방향

응답자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평균 19.5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는 곧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을 위하여 이들의 생활과 요구에 맞도록 주택을 계획해 줄 필요성과 중요성이 큼을 말해준다.

노인가구의 주택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설정을 위해 공간별로 수행된 개조내용을 조사한 결과 침실의 경우 '수납공간의 증가' 및 '문턱 제거',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를 변경'하는 개조행위가 가장 많았다. 그밖에 '비상연락장치 설치'나 '단차제거'에 대한 개조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개조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거실에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창문처리를 통해 눈부심을 방지하는 개조행위가 많았으며 '조작하기 쉬운 문/창문 손잡이 설치'에 대한 개조요구가 높아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조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엌에서는 작업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선반을 손닿는 높이에 설치'하거나 '부엌작업대 윗벽에 보조선반을 설치'하며 '부엌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개조가 많이 이루어졌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상 '조작이 용이한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와 '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항들의 올바른 개조를 위한 지침 혹은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노인가구가 사용하는 욕실에서는 목욕, 세면 등의 개인생활행위와 함께 세탁작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오랜 생활습관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생활 특성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거공간의 협소함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상당수의 가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은 유의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가구의 욕실 개조 시에는 세탁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욕실의 난방이 안 됨에 따라 나타나는 노인의 안전과 자립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욕실 바닥에 난방설비를 하거나 난방용 열기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욕실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자 필수적인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노인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끄럼방지용 바닥재'로 교체한다거나 출입의 편의를 위해 '출입문 폭을 확장'하는 식의 개조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욕실개조를 실시한 노인가구의 경우 욕조, 양변기, 세면대 주위의 손잡이지지대(핸드레일) 설치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용자의 자세나 불편한 부위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손잡이지지대(핸드레일)설치에 대한 개조지침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위치나 치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되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능력에 따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설치 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주택특성에 따른 개조내용과 기준구분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현재의 주택에 거주한 거주기간은 평균 약 20년이며 이중 1/3은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대부분은 이처럼 노후화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개조대상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과 조건에 따라 주택개조의 내용과 기준을 달리 제시하는 구체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지역긴급통보장치의 네트워크화

많은 응답자가 '비상연락장치 설치'에 대한 개조요구를 함으로써 앞으로는 유약한 노인의 특성상 안전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긴급연락장치를 네트워크화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집 수 일 : 2006년 09월 01일
- 심 사 일 : 2006년 11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2월 07일

【참 고 문 헌】

권오정(1997).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7(1), 1-17.

김익기 · 김동배 · 모선희 · 박경숙 · 원영희 · 이연숙 · 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미래인력연구소 센터.

김태일(1998). 고령자 주택의 설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2), 23-34.

문희정(2003). 재가노인 단독세대의 주거환경 특성과 요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신영 · 최은희 · 박광재 · 지은영 · 한수진(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서종균(2002). *가구특성별 주거수준*. 한국의 주택(윤주현 편). 통계청.

소비자보호원(1998). *노인안전사고*. 소비자안전국.

심영 · 조명희 · 조영희 · 김대년(1996). 노인복지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20.

오영희 · 석재은 · 권중돈 · 김정석 · 박영란 · 임정기(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 오영희 · 석재은 · 도세록 · 김찬우 · 이윤경 · 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정책보고서 2005-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명규(2000).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9), 29-38.

통계청 · 한국주택학회(2002).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자료집*.

_____ (2006). 2006 고령자통계.

Fogel, B.(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staying at home. *Generation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n Aging*, 27-35.

Mutchler, P.(1994). Where elders live. *Generation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n Aging*, 16, 7-14.

Pynoos, J., Cohen, E., Davis, L. & Bernhardt, S.(1987). Home modifications: Improvements that extend independence. In V. Regnier & J. Pynoos (Eds), *Housing the Aged: Design directives and policy considerations* (277-303). New York: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

_____ J., Nishita, C. & Perelman, L.(2003). Advancements in the home modification field: A tribute to M. Powell Lawton.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17(1/2), 105-116.

Rowles, G. D.(1993). Evolving images of place in aging and aging in place. *Generation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n Aging*, 17, 65-70.

Wagnild, G.(2001). Growing old at home.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14(1/2), 71-84.